



## 이탈리안 네오 하드 밥 레이블 알보레 재즈

엔리코 라바, 스테파노 볼라니, 엔리코 피에라논치 등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재즈 뮤지션들, 감수성이 넘치는 그들의 음악은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의 신생 재즈 레이블인 알보레 재즈(albore jazz)는 이런 이탈리아와 유럽의 고품격 재즈를 일본과 세계에 소개한다. 특히 알보레 재즈가 주목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네오 하드 밥 스타일 뮤지션들이다. 맥스 이오나토, 로베르토 기로, 파브리치오 보소, 루이지 마르티날레 등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이름이지만, 뮤지션과 레이블의 창조적 조화를 통해 한 장의 작품마다 담아내는 풍성한 사운드와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깊은 우수를 머금은 연주들이 앨범에 가득 담겨 있다. 이제 2년이만 짧은 역사를 지닌 알보레 재즈는 앞으로도 여러 뮤지션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풍성한 재즈의 즐거움을 전할 것이다.

## Max Ionata Quartet featuring Fabrizio Bosso



### 01. Two Friends

<Inspiration>

파브리치오 보소가 참여한 맥스 이오나토의 2009년 작

로마 출신의 맥스 이오나토는 하이 파이프 콰텟(High Five Quintet)의 다니엘레 스타나리에코와 함께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테너 색소폰 연주자 중 한 명이다. 로렌조 루치, 지만투카 렌지 등의 작곡을 통해 소개된 그는 현재까지 7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꾸준한 명성을 얻고 있다. 2009년 발매된 이 작품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뮤지션인 트럼펫터 파브리치오 보소를 초청하여 더욱 강화된 혼색선 사운드를 담고 있다. 'Two Friends'는 피아니스트로 참여한 루이지 마누치가 작곡한 곡으로 색소폰과 트럼펫이 내는 독특한 색채의 인트로로 문을 연다. 두 악기의 풍성한 조화와 각각의 솔로 플레이가 돋보이는 곡이다.

## Luca Mannutza Sound Six

### 02. Litha



<Tributo Ai Sestenni Anni 60>

혼색선의 풍성한 사운드가 담긴 모던 하드밥 앨범!

하이 파이프 콰텟의 리더로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중견 피아니스트인 루카 마누차, 루카 마누차 사운드 six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려온 마누차가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젝트로 2010년 발표된 이 작품은 색소폰 주자 맥스 이오나토, 뉴욕 출신의 베테랑 트럼펫터 엔다 그레비우, 화제가 되고 있는 젊은 알토 색소폰 연주자 파올로 레키어의 혼색선을 중심으로 자신의 음악적 배경이 된 60년대 사운드에 도전하는 모던 하드밥 스타일의 연주를 담고 있다. 원래 'Litha'는 원래 칩 코리아의 작품으로 이 앨범에서는 혼색선을 중심으로 에너지 넘치면서도 맑은 멜로디라인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연주되었다.